

초대의 윤리학

ETHICS OF ENGAGEMENT

저자 히삼 알 탈립(Hisham Yahya Altalib) | 역자 곽동훈

초대의 윤리학

ETHICS OF ENGAGEMENT

저자 히삼 알 탈립 (Hisham Yahya Altalib) | 역자 곽동훈

초대의 윤리학

ETHICS OF ENGAGEMENT

| 초판인쇄 | 1판 1쇄 2021년 11월 05일

| 저 자 | 히삼 알 탈립(Hisham Yahya Altalib)

| 역 자 | 곽동훈

| 펴낸이 | 최검열

| 출판총괄 | 도기섭

| 기획총괄 | 김현상

| 편집책임 | 구분희

| 편 집 | 신소미, 이수정

| 펴낸곳 | 도서출판 밀알

| 등록번호 | 제1-158호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빌딩 3차 1412호

| 전 화 | 02) 529-0140

| 팩 스 | 02) 6008-7524

ISBN 978-89-148-0336-2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사)쌀람누리를 통한 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도서출판 밀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은 저작물 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Translation from English *Inviting to Islam: Ethics of Engagement—An Islamic Perspective* Original title in English was published in 2014
First published in Korean, 2022

초대의 윤리학

ETHICS OF ENGAGEMENT

저자 히삼 알 탈립(Hisham Yahya Altalib) | 역자 곽동훈



목차

도입말	7
서약의 목표	14
서약의 기초	16
서약이 필요한 이유	18
이슬람의 각성	18
서약의 원칙들	31
[a] 초대의 기초	35
1. 신의 유일성(따우히드)	
-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37
2. 이슬람은 보편적인 종교	39
3. 이슬람은 포괄적인 종교	43
4. 원천으로 돌아가기	47
5. 신앙과 현실에 대한 더 나은 이해	51
[b] 초대의 윤리	58
1. 초대와 이슬람	60
2. 롤모델이 되어라	63

3. 중용, 균형, 관용	68
4. 긍정적 태도	73
5. 겸손과 겸양	78
[c] 초대의 방법	86
1. 사상의 통일성과 명확성	89
2. 방법론의 통일성과 명확성	93
3. 초대는 모든 이를 포용한다	97
4. 우선순위의 목표와 논리	104
5. 상호협력	114
6. 투명성과 책임성	119
7. 조직적 활동	122
결론	133
용어해설	136

ETHICS OF ENGAGEMENT

초대의 윤리학

도입말

- 서약의 목표
- 서약의 기초
- 서약이 필요한 이유
- 이슬람 부흥과 초대

도 입 말

이슬람은 오늘날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원리와 믿음, 실천이자 생활방식의 살아있는 총합체이다. 이슬람의 신조와 전통은 약 14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퍼져나가 현재 전 세계에서 믿는 이들이 강력하게 체현하고 있다. 신도들의 꾸준한 증가와 이 신앙에 대한 이해의 끊임없는 개선은 이슬람의 신성한 본질과 인류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한다.

이슬람은 보편적인 메시지이며, 무슬림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보여주신 사례를 본받고 꾸란에 계시된 윤리와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진실한 종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이 지

닌 의무이다. 따라서 무슬림은 역사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슬람에 대한 온전한 정보, 즉 이슬람의 윤리와 실천, 메시지와 목표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 책의 목표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

아랍어 초대(Dáwah)는 무언가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체계나 윤리, 믿음에 초대하는 것 혹은 단순히 저녁식사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앙적 소명이라는 맥락에서 초대는 무슬림이 지식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이슬람 신앙과 실천을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초대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슬림에게는 신앙을 더욱 강화해주거나 이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하는 실천이고, 비무슬림에게는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파하고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천이다.

초대 일꾼(Dáiyah)은 (남녀불문) 진실한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타인을 초대하는 사람(전도자) 말한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무슬림은 초대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이슬람을 믿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평소의 행동이 이슬람의 일신교적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 공동체 내에는 초대의 실천에 헌신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있는데, 이 책은 특히 그들 초대 일꾼들에

게 말하는 책이다.

서약(Covenant)이란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맹세 혹은 약속을 뜻한다. 우리는 초대 일꾼이 이 책을 통해 이슬람의 핵심 원천인 꾸란과 선지자 전승의 본보기에 따라, 이 서약이 제시하는 원칙과 윤리, 방법을 적용하여 현명한 초대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모든 무슬림, 그중에서도 특히 초대 활동과 관계있는 개인이나 그룹이 이 서약에 포함된 원칙들을 채택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치와 도덕, 윤리를 체현하며, 자신이 지닌 최고의 능력에 이를 적용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는 초대 일꾼들이 모든 이에게 협력과 관용, 존중과 이해를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 순수한 의도와 진지한 바람으로 초대 활동에 봉사하겠다고 명예롭게 맹세하기를 요청한다.

이 서약의 원칙들은 반세기에 걸친 필자 개인의 경험과, 활동가로서 관찰한 바에 따른 성과이다. 또한, 이 원칙들은 필자가 전 세계의 수많은 조직과 공동체, 사상적 지도자와 상호교류하면서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현장에서 열심히 기록하고,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또한 필자는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귀와 눈을 크게 열고, 이 분야에 개선과 향상(Ihsan and

Itqan)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필자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들과 협력하여 궁극적인 성공을 이룩하려고 노력해왔다. 필자는 우리 각자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끌어안아야 할 (윤리적, 행동적, 사회적, 정치적, 전략적) 주요한 특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했고,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일련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답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들이 이슬람의 실천에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믿는다. 이 원칙들이 이슬람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 원칙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활동가들이 이 원칙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강력하게 적용한다면, 전 세계의 초대 활동이 큰 성공을 거두고, 이슬람의 진정한 가치와 윤리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극단주의나 배타주의적인 이슬람이 아닌)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따르는 참된 이슬람에서 나온 이 원칙들은 정의와 공감, 이해와 평화, 친절 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극단주의자들이나 왜곡된 미디어, 정치가, 혹은 자신들의 빼놓아진 목표를 위해 일부러 이슬람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가르침을 오용하는 이들은 거짓 이슬람을 퍼뜨리고 있다.

이 서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1) 초대의 근본원칙
- 2) 초대의 윤리
- 3) 초대의 방법

이 서약 자체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원칙들은) 어떤 정당이나 집단, 운동, 학파, 법해석 혹은 지역과도 관계가 없으며, 그 중 어떤 것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기서 제시하는 원칙은 완전히 이슬람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서 직접 유래하며, 우리가 인류에게 봉사할 때 사용할 기준이 된다.

서약의 목표

필자는 이 책에서 초대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일련의 본질적인 원칙들을 밝히 고자 한다. 이 원칙들을 통해 모든 공식·비공식 초대 활동이 조화를 이루고, 활동가들 사이에 결속과 믿음, 사랑과 이해 정신이 자라날 것이다. 또한 이는 불화를 줄이고, 협력의 기회를 늘리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상호협력과 관용의 분위기가 확립되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가 규범이 될 것이며, 따라서 통합되고 효과적인 초대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이 서약은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 개혁과 창조성의 전망을 확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원칙들은 우리를 균형 잡힌 중용과 자제로 인도하고, 극단주의와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로써 활동가들은 우리의 공동체와 조직,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게 이로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슬람의 초대 원칙들을 다루는 이유는 모든 초대 활동의 근본을 이루는 실

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원칙들은 각각의 무슬림, 그중에서도 특히 초대 일꾼들이 우리 신앙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에 따라, 초대 활동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에서 건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슬람은 유일성(따우히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믿음)이라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기초 위에서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는 이 서약이 전 세계의 초대 활동에 통일적인 영감을 주는 안내자가 되고, 나아가 다양한 초대의 방법들이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되어 있음을, 즉 유일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서약의 기초

이 서약은 초대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지적, 윤리적, 교육적, 실천적 방침을 제공하며, 정확성과 객관성, 정직성, 명확성, 단순성을 지향한다. 열성적인 일꾼들이 이 서약을 준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일꾼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연구할 때 이를 출발점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서약을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할 뿐 아니라, 무슬림이 더욱 나은 무슬림이 되게 하는 데도 사용하기 바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제시하는 원칙들은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서 유래하고 기초한다. 여기에는 전제가 되는 몇 가지 확신이 있다.

- *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에게 영감과 행복을 주는 원천이다.
- * 우리는 전 세계의 무슬림공동체(Ummah)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이에 대해 감사한다.
- * 초대 활동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역자 모두가 수행한

바 있는 가장 고귀한 임무이다.

- * 미래 세대의 초대 일꾼들은 건강한 원칙과 윤리, 올바른 초대의 방법을 통해 실수를 적게 하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화하여 주시며,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과 교우 그리고 무슬림공동체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서약이 필요한 이유

이슬람의 각성

무슬림 세계는 가히 ‘이슬람의 각성’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는 이슬람공동체가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새로이 깨어났다는 긍정적 신호이며, 또한 우리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를 깨달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슬람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뒤처짐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무슬림들이 마주해온 억압과 불의에 맞서면서 이 서약에서 제시하는 여러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미디어의 전파와 여행의 증가 등의 이유로 전 세계 사회가 점점 통합되면서,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이슬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봉합을 위한 초대 활동을 강화하고 무슬림의 보편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슬람을 시대와 장소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갈라놓은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종교로서 전파해야 한다.

이러한 초대 의 서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세
기에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지속 중인 이슬람 각성이라는
기회를 전 세계의 무슬림이 충분히 활용해야한다는 자각
때문이다. 이슬람의 부흥은 역사를 통해 수없이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수많은 초대 일꾼들 덕분이다.

이슬람 각성이라는 현상에서 우리 초대 일꾼들은 초
대활동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영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슬람의 각성이 이루어진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이 사건들은 초대의 서
약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 지를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서약의 원칙들을 수용함으로써 이슬람의 지속적
인 부흥과 각성을 더욱 지원하고 고양시키며 더욱 큰 성
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성이 수많은 요
소의 결과이자, 정부와 민간을 막론한 수많은 개인과 그
룹의 노력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무
엇보다도 이는 이슬람공동체의 자존(自尊)과 진정한 본
질에 다가가려는 소망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표현이며,
운명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또한 이슬람
의 각성은 이슬람이 전 세계에 걸친 수억 인류의 일상에

여전히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슬람의 각성은 꾸란의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 상호견제의 법칙(Tadafu)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이 땅은 진즉 부패에 압도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세상에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꾸란 2장 251절)

무슬림공동체와 초대 일꾼들은 이 신성한 법칙으로부터 행동에 필요한 명백한 지침과, 정체와 부패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는다. 또 이를 통해 무슬림은 우주의 진정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확신과 안정, 희망을 얻고, 더욱 굳건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슬람 부흥과 초대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그룹은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서 영향을 받아 초대 활동에 대한 필요를 자각하곤 했다. 그런 상황과 조건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데, 여기서 필자는 나 자신이 초대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 자극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필자가 제시하는 사례를 읽은 후, 각자 본인들이 초대 활동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초대 일꾼은 이 소중하고 명예로운 임무를 선택한 다른 일꾼들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기를 소망한다.

아랍 무슬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세계관을 흔들어서 놓고 내가 초대 활동에 매진하도록 자극한 주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67년 아랍군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1967년의 패배는 중동의 심리적, 지적, 정치적, 사회적 퇴행을 상징했으며, 우리에게 새롭고 낮은 현실을 깨닫게 했다.

당시 각국의 정부는 자신들이 내걸었던 고상한 약속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혁명이념과 세속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바트

주의(Bathist) 등을 중동지역에서 실현하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무슬림이 그런 이데올로기에 등을 돌리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노력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데올로기들이 검증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생활방식과 윤리, 핵심적인 믿음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종교와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슬림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갔는데, 이슬람이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존재해왔고, 아랍인의 압도적 다수가 무슬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또한, 고난과 위기의 시대, 길잡이와 대안 그리고 해답을 구하는 시대에 신앙과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무슬림 다수가 보기에 이슬람은 유일하게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시간의 시험을 이겨냈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문제해결을 도왔고, 공통의 이해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1967년의 군사적 패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슬람공동체가 이 퇴보를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초대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그 직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패배한 일이다.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패배는 이슬람 부흥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모든 종교

를 반대하고 수백만의 무슬림과 그리스도교인, 유대인에게 재앙을 초래했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종언을 고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련에 속했던 지역과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무슬림 국가에 엄청난 초대의 기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은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이 사건은 무슬림공동체를 뒤흔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모두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9월 11일의 사건과 그에 따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 이후 무슬림 신앙과 윤리의 모든 측면이 의문과 점검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는 무슬림에 대해 정치적인 것이건 경제적인 것이건 간에, 혹은 종교적, 문화적인 것까지 조금이라도 이슬람이나 무슬림과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매서운 태도로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했으며 조사하고 심문했다.

이슬람은 서구에서 뿐 아니라 심지어 이슬람권 내에서도 수세에 몰렸다. 그리고 무슬림의 생활 역시 극적으로 바뀌었다. 전 세계로 이슬람혐오증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이슬람과 꾸란 그리고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 알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고, 무지 때문에 그런 자들도 있는

데, 문제는 이슬람을 올바로 설명해주는 이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대중들이 이슬람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서 이슬람은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이 때문에 초대 일꾼들은 진정한 이슬람을 대중들에게 올바로 알려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더욱 최근의 일로는 2010년 12월 튀니지아의 한 평범한 시민이 촉발시킨 ‘아랍의 봄’ 사건이 있다. (*역주: 노점상 모하메드의 분신자살에 이어 벌어진 시위로 장기 집권 중이던 튀니지아 대통령이 축출되었다.) 이로 인해 무슬림 세계는 현시대에서 가장 큰 정치적 변동을 경험했다. 튀니지아, 리비아, 예멘, 이집트 등의 독재가 무너졌고, 아랍 세계의 수백만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자유와 존엄을 요구했다. 무너지지 않은 정부들도 정책을 바뀌어 의미 있는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정치체제와 경제 구조, 언론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바꾸었다.

초대 일꾼의 입장에서 ‘아랍의 봄’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전망과 희망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제 개혁가들은 신앙이나 믿음 때문에 탄압받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공식적으로 조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과 겁박 대신 용기가, 반대자에 대한 탄압 대신 사상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주어졌다. 무슬림 냉소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 사회주의자 등과 협력하는 초대 일꾼들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개선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곳곳에서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꺾으려는 시도가 목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랍봉기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0년 12월에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건들은 무슬림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이런 절실한 자각은 서방 무슬림 공동체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많은 활동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상호협력적이며 제도화된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서구의 일꾼들은 그들이 떠나온 고향에는 없던 자유 덕분에 이 책에 정리된 여러 원칙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초대 일꾼들의 고된 작업과 헌신 덕분에 무슬림 공동체는 종교적 문제 길잡이가 되는 조직 뿐 아니라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다 조직화된 공동체는 더욱 진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공동체를 최초로 설립했던 이들이 가졌던 꿈을 훨씬 넘어서는 주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각성이 가져온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목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디

에나 들어선 커뮤니티 센터와 모스크, 이슬람 학교, 이슬람 투자회사와 금융기관, 주택금융 프로젝트, 출판, 번역, 다양한 잡지와 신문의 배포 등이 있다.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웠고, 무슬림 땅을 독재와 점령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에 참여했다. 원래부터 서구에 살던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육과 인권, 정체성 자각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서 새로이 넘어온 이민자들과의 교류와 상호 이해란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진전이 이루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이 책의 원칙에 제시된 가치와 윤리, 도덕을 현실에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도하고 개선하고 조정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대세계에서 무슬림의 명확한 정체성과 이슬람의 진정한 본질을 체현하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성공적인 이행을 이루어야 한다.

또 하나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사실은, 초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슬람 부흥의 과정에서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에 도전받고 있다

는 점이다. 분명 우리는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긴급한 문제에 대한 대담과 해결책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초대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준비하고, 적절한 해답과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기꺼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초대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이고, 종착지가 없는 여정이다. 우리는 때로는 약해질 수 있으며, 강할 때가 있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으며, 생각을 재고하고, 재평가하며,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의 부흥은 외부에서뿐 아니라 내부의 다양한 분파들로부터도 위협과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내부의 위협은 대개 외부의 위협보다 더 나쁘고 해롭다. 외부의 위협이 이슬람의 다양한 반대자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부의 위협은 무슬림의 얼굴을 하고 잘못된 개념, 거짓 논증, 공상적인 경향, 성급함, 현실과 유리된 이상주의 등의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초대 활동에 몸담은 이들 중에서도 성실성에서는 의심할 바 없지만, 목표를 잘못 설정하거나 시간과 자원을 잘못 배분하는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게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초대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이들은 여러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심지어 그들이

초대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자체까지 증오하게끔 만든다. 따라서 올바른 사고와 판단력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영역에서는 헌신적인 일꾼도 부도덕한 정치세력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 그리하여 자신이 치른 희생이 오히려 세계의 반발만 불러오고 만다. 초대 활동과 정치는 양자 모두에게 위험한 조합인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활용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각자의 규칙과 계획,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슬람은 의심할 바 없이 정신과 정치까지 포함하는 인간사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생활방식이지만, 초대 그룹은 정치적인 당파와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초대와 정치라는 두 가지 스펙트럼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무슬림세계는 끊임없이 부흥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때마다 새로운 도전이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일꾼은 쿠란과 선지자의 전승이 가리키고 이 책에 요약된 원칙들을 현실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분석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초대 일꾼이 이 책의 원칙들을 적용할 때 알아야 할 몇 가

지 중요한 사실과 요점을 정리해놓았다.

-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이슬람을 현명하게 제시하고 대표하지 못한다면, 오늘 다른 이에 게 이슬람을 성공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린다.
- 하나님의 법칙은 무슬림이 단지 이슬람을 천명한다고 해서 그에게 자동적으로 승리를 선사하지를 않는다.
- 지적이고 헌신적인 무슬림이라면 초대 과정과 실천에 내포되어 있는 약점을 끊임없이 스스로 찾아내서 자신의 일을 개선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무슬림은 도전과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위기와 피해 관리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 일꾼은 끊임없이 초대의 수행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신선한 방법을 탐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 수행 중인 초대 활동의 효과를 계속 검토하고, 시대와 장소를 감안할 때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일꾼들 서로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여, 모든 일꾼의 지식과 능력을 합칠 수 있도록 한다.

무슬림공동체는 이제까지 진보를 가로막던 지적 예측과 모든 형태의 멍에를 벗어던질 때가 왔다. 우리 공동

체는 자존과 자유를 새로이 고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슬람 부흥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디 이 책이 전 세계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초대 활동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ETHICS OF ENGAGEMENT

초대의 윤리학

서약의 원칙들

- [a] 초대의 기초
- (b) 초대의 윤리
- (c) 초대의 방법

서약의 원칙들

초대 활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며,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대리로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끝어안고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바치면서 초대 활동에 임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같다. 다음의 꾸란 구절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실로 하나님은 초대 활동을 매우 높이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올바른 일과 함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꾸란 41장 33절)

원칙은 모든 믿음과 행동의 체계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이 된다. 꾸란은 이슬람 원칙들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기능하며, 무슬림은 꾸란에 따라 사고하고 믿고 행동해야 한다. 원칙은 판결(ruling)과 반대로 본질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특수하게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사람과 집단, 공동체가 각자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슬람의 초대는 꾸란과 선지자의 원칙과 가치가 인도하는 분야이다. 일꾼들이 올바른 초대의 원칙을 채택하면 길을 잃거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요컨대, 잘못된 개념은 잘못된 행위로 이어지는 반면, 올바른 개념은 올바른 행위를 낳는다. 물론 근본적인 개념을 올바로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초대의 원칙과 개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초대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우리는 보다 생산적이고 적절한 초대 활동의 주요한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초대의 기초
- 초대의 윤리
- 초대의 방법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 아래에서 이슬람의 전거에서 파생된 관련 원칙들을 논의할 것이다.

[a] 초대의 기초

초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슬림 특히, 초대 일꾼은 이슬람의 기초와 초대의 기초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깊은 통찰, 건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초대는 신앙의 궁극적인 원칙과 기반 즉,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너희의 신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으며 신은 오직 그 분 뿐이니, 가장 자애롭고 가장 자비로 우신 분이다.”(꾸란 2장 163절)

초대 일꾼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장 우선적인 진리로 삼고 이슬람의 보편성과 포괄적인 본성을 이해하면서, 가장 먼저 일꾼 자신부터 시작하여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초대의 메시지가 다가가도록 하며, 또한 초대가 삶의 모든 측면에 응답하도록 한다.

일꾼을 인도하고 그에게 영감을 주는 궁극적인 원천은 곧 이슬람의 원천인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이다. 그리고 초대의 실천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현장을 고려할 때 일꾼은 이슬람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게 좋다. 또한, 다양한 상황, 시간, 장소에 적합한 방식으로 초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초대 일꾼은 오늘날의 현실과 그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슬림에게 주어진 임무에 속한다. 하나님은 여러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깊은 이해와 지식에 대한 헌신이 야말로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끊임없는 혁신하고 재생시키는 것이다.

1. 신의 유일성(따우히드)

-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창조주이자 우주의 관리하는 분이시고, 오직 홀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은 위엄과 아름다움이라는 수식이 어울리시고, 불완전한 어느 것과도 거리가 멀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주를 드높이며, 주의 처벌을 두려워하여, 주의 자비를 구한다. 우리는 항상 주를 경외하고, 우리가 한 말에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을 얻은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한 말에 진실해야 한다.”(꾸란 9장 119절)

우리는 모든 무슬림에게 (특히 초대 일꾼에게) 이슬람의 교리를 모든 이해와 믿음, 실천이 출발하는 전제로 삼으라고 권하고자 한다. 교리는 모든 신앙적 문제에서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모든 종교적 활동 뿐 아니라 무슬림 생활모두에 기초가 된다.

교리는 단순히 무슬림이 읽고 난 다음 다른 문제가 떠오를 때 잊어버리는 책의 한 챕터가 아니라, 우리가 인

생의 다른 챕터를 읽을 때도 여전히 동반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교리는 무슬림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와 동반하고 그의 삶을 지배한다. 따라서 모든 무슬림은 교리에 수반된 지식을 깊고 정확하게 지니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지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며 다른 신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경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교리를 위배하는지, 즉 무슬림으로 하여금 이슬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

오늘날 무슬림 어린이들은(예배 전에) 세정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부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외우는데, 자신의 교리를 위배하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예배 전의)세정이나 교리도 모두 중요하지만, 교리는 모든 신앙적 실천과 판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중요성의 무게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총체적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신은 한 분이다”라는 문장을 외우는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진리를 주창하는 이가 우리 뿐만은 아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빠기거나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꾸

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승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일상의 생활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여주면, 그들 역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증오와 극단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이해와 관용으로 보듬어야 한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을 점유하고, 우리의 정신과 의식에 반영되며, 우리 실천에 드러난다.

2. 이슬람은 보편적인 종교

이슬람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종교

우리는 이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고, 튼튼하며, 영원하고, 최종적인 종교라고 믿는다. 이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슬람은 우리의 대의(大義)이자 정체성이고 해결책이다. 이슬람은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이며 미래이다. 이슬람은 우리가 현생과 내세에서 행복을 누리는 원천일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주신 생활방식이다. 우리는 이슬람을 믿고, 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이슬람의 대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나님의 종교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사자이자 예언자로 보내서 모든 인류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무함마드여.) 우리는 그대를 인류 모두에게 좋은 소식과 경고를 알리는 전령으로 보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꾸란 34장 28절)

이슬람은 보편적 종교이고,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든 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무슬림과 초대 일꾼들의 임무이다.

인류는 한 가족

이슬람은 모든 사람이 인류에라는 끈으로 묶인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며, 언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모든 인

류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두의 안녕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를 전하며, 정의를 수립하고, 범죄와 싸우며, 지식을 전파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며, 노인과 빈자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조약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인류는 한 가족이고, 우리가 초대 활동을 하는 까닭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법은 중립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그룹 혹은 신앙을 편애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일정하고 중립적인 우주의 법을 창조하셨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자연법 아래에 평등하게 서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자연법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같은 이치로 누구라도 자연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이는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누구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승리를 얻어내야 한다.

이슬람은 단합의 종교

이슬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이고, 그분의 이름은 알라이다. 이슬람은 또한 단합을 요구한다. 무슬림 공동체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으며, 무슬림 공동체를 포괄하는 통일성을 믿는다. 따라서 초대 활동은 지적, 정서적, 실천적 단합을 지향하고 모든 형태의 불화를 피해야 한다. 단합은 힘이고 자비이며 축복이다. 불화하는 이들보다 단합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초대 일꾼들이 바치는 노력과 희생에 비해 무슬림 공동체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초대 일꾼들이 무슬림 공동체의 관심과 여망을 표현하는 창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미진하다. 이에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초대 활동에서 단합된 노력이 부족하고, 이데올로기와 실천에서 공통의 합의된 기반을 찾지 못해 중구난방으로 일을 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슬림 전체와 특히 초대 일꾼들은 다음의 구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끈을 꼭 붙잡고 절대 서로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축복을 기억

하라. 한때 너희는 서로를 적으로 보고 싸웠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그분의 축복으로 너희는 형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너희가 불의 절벽 끝에서 있을 때 그분이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뜻을 분명히 전달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인도받지 않았는가. (꾸란 3장 103절)

3. 이슬람은 포괄적인 종교

경배의 포괄적인 의미

무슬림으로서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슬람을 체현한다. 이슬람의 가치, 원칙, 판결이 개인적인 수준과 공동체 수준 모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슬람은 단순한 의식(儀式)이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모두를 포괄하는 준거 틀이다.

경배는 의식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류와 거래, 자기 개발, 문명의 건설 등에도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꾸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인간과 정령을 창조한 이유는 오직 그들이 나를 알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꾸란 51장 56절)

이러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경배의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보다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무슬림이 경배의 개념을 단지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로만 제한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슬람학교의 교육과정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면 이슬람을 예배의식(Ibadat)과 교류행위(Muamalat)로 나누는 통상적인 구분이 들어 있다. 바로 이런 ‘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예배행위로만 제한하는데, 이는 중대한 실수이다. 이런 잘못된 구분 개념이 널리 퍼져서 교류행위보다 예배행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비치게 되었다. 또한, 이 구분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의 목적에도 알

수 있는 이슬람의 포괄적인 본질을 가려왔다.

따라서 우리는 경배를 선지자와 초기 무슬림 세대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경배를 모든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경배란 의식과 거래행위, 자기개발, 문명의 건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 타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오락과 일 그리고 일상과 사회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 법의 시행

이슬람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면, 우리 생활 전체에 이슬람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필연성이 도출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에 많은 난관이 있다. 우리는 사적 수준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인도받고, 일상의 모든 측면에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 살든 비무슬림 국가에 살든 공적 수준에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해결책이라면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슬람 활동가는 공개적이고, 자유롭고, 투명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는 대중들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알리는 사업을 평화적으로 전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지배자의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거나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지배자나 이슬람 활동가 모두에게 이롭다. 이슬람 활동가들의 평화적인 접근방식은 지배자의 양심을 일깨워(유약함, 두려움, 혹은 개인적인 변덕과 욕심 등 이유야 무엇이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은 점진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도 좋은데, 사실 급작스러운 시행보다는 점진적인 시행이 훨씬 나은 방식이다. 그리고 활동가들의 공개적인 운동방식은 문제가 있을 때 발견하기가 쉽고 고치기도 쉽다.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라고 요구할 때, 이슬람 활동가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누구를 지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겠다고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선언해야 한다. 또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이가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주저 없이 그의 보조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샤이크 아부 알-하산 알-나드위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자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있는 자가 권력을 쥐는 것보다 낫다.”

이슬람 활동가는 이 귀중한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시민 다수가 강제성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법을 한 나라에 실현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하다.

4. 원천으로 돌아가기

초대의 기초 중에는 이슬람의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이라는 최고의 원천에서 직접 파생된 이슬람의 틀이 모든 초대 활동의 공통기반이라는 인식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종교로 인도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인간의 노력보다 더 권위 있는 이슬람의 원천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이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이슬람을 울

바로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따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타인들도 이슬람의 참된 인도를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도 이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진실로 꾸란은 무슬림들의 길잡이와 영감, 은총의 궁극적인 근원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준 경전을 통해, 믿는 이에게 명백하게 길잡이와 은총을 주었다.” (꾸란 7장 52절)

꾸란은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서 영감과 인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너희 모두가 본받을 좋은 사례이다.” (꾸란 33장 21절)

꾸란 언어의 중요성

꾸란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이슬람 활동 모두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란의 내용과 언어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꾸란을 읽고 이해하고 꾸란의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언어는 문화와 지식을 전달하는 용기(用器)이며,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랍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아랍어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계시인 꾸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언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언어로 계시를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너희에게 아랍어로 메시지를 내려 보냈으니, 너희가 이해하기 쉬운 터이다.” (꾸란 12장 2절)

히브리어는 토라의 언어이고, 아랍어는 바이블의 언어이다. 아랍어는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 그리고 이슬람 유산 대부분을 기록한 언어이다. 꾸란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아랍어로 계시한 기록이며, 꾸란의 용어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배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비아랍 무슬림 국가에서 아랍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아랍어를 사용하는 무슬림들의 아랍어 능

력이 더욱 증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슬람사상의 학파들

이슬람의 역사를 통해 무슬림은 꾸란과 전승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해를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서로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꾸란과 전승을 이해하는 방식과 방법론에 따라 몇 가지 이슬람 학파가 등장했다. 각 학파는 신앙의 근본과 조화를 이루는 한 우리가 이슬람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대 일꾼으로서 각 이슬람 학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들이 원천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면 존중하는 것이다.

이슬람 법률을 다루는 다양한 학파들은 위대한 학자들이 시작하고 그들을 이은 여러 세대의 전문가들이 다듬어놓은 중요한 유산을 대표한다. 그들은 무슬림의 자랑거리이며, 무슬림은 그 중 어느 것을 따라도 된다. 하지만 무슬림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가능하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슬림은 또한 다른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만약 진리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 예의 바르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 결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으로 판명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 법률학파들이 무오류의 존재들은 아니며, 각각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명한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전문적인 학자들은 문서증거와 법률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여 어느 견해가 더 옳은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학파를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거나, 특정 학파를 폄훼하고 비판하며 견해를 버리라고 요구하면서 이슬람 법률의 풍부한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꾸란과 전승에서 바로 판결을 끌어내는 것은 무슬림 공동체에 더욱 해로운 일이다. 이 학파들은 모두 꾸란과 전승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학파들을 설립한 학자들은 자신의 방법론을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을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이 학파들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용성이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기존 학파와 다른 판결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의도적이건 아니건, 자신이 비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새로운 학파 하나를 만들어내는 셈이 아닌가.

5. 신앙과 현실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이슬람이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이라는 주원천을 기초로 하는 보편적이고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종교라는 근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하면, 우리 무슬림, 특히 초대 일꾼들은 이슬람을 총체적으로 수용하고 체현하기 위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슬람은 모든 시대와 장소, 사람들을 위한 종교이며, 몇 가지 형식의 깊이 있는 이해의 법리(Fiqh)로 신앙과 현실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법리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피크 마까시드 알-샤리아 : 이슬람법이상에 관한 법리
- 피크 알-와끼 : 현실에 대한 법리
- 피크 알-마알랏 : 결과에 대한 법리

이슬람법이상에 대한 법리 (피크 마까시드 알 샤리아)

이슬람 활동가는 이슬람법의 고귀한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구의 의미에만 집착하고 입법

의 배경에 있는 고귀한 목표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결코 종교적 문서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 문서가 지닌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정신과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해석에서 합의에 도달한 문서와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문서를 구분해야 한다. 부분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슬람법의 일반적인 목적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법에 관한 금언에, “글자가 아니라 의도와 본질을 이해하라”고 했다. 또 다른 금언에서는, “근간의 의도에 따라 행동을 판단하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이슬람법의 높은 목적을 신앙, 정신, 후손, 신체, 재산이라는 다섯 가지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슬람법의 높은 의도와 목표가 정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이해에 도달했다. 초대 일꾼은 이슬람 신앙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법의 목표를 이해한다면, 신앙의 근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생활과 밀접하고, 현실적인 이슬람 지식의 전파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초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법리(피크 알-와끼)

이슬람 활동가는 현장에서 동시대의 이슈를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전 세계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바라는 목표와 가용한 자원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모토와 목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활동가는 조심스럽게 선정한 확실한 주제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또한,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에서 점진적인 발전의 논리를 준수해야 한다.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사회사업,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다면, 활동가가 속한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대 일꾼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일꾼이 해당 장소와 시간에서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결과에 대한 법리(피크 알-마알랏)

초대 일꾼은 결과의 법리가 지닌 중요성, 즉 그가 내리는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개인적, 지역적, 국제 수준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초대 일꾼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 결정이 자신과 주변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하다. 일꾼은 추정보다는 확실성, 성급함보다는 신중함, 수행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지닌 능력에 기대야 한다. 초대의 역사를 보건대, 특정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은 공공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내린 성급한 결정이 실제로는 재난과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초대 일꾼이 결과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면 위기관리와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이해하는 일꾼은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사고하고, 성공을 준비하는 전략을 짜며, 사고와 실천에서 늘 평온하고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도피의 유형

우리는 이슬람 역사를 통해 초대 활동을 방해해온 몇 가지 함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슬람법의 이상과 오늘날의 현실, 그리고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선택했다. 일부 무슬림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과거 속에서만 살고, 수시로 과거 이슬람의 황금시대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만 몰두한다. 반면 일부 무슬림은 현재에 살면서 무슬림 공동체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한탄하면서, 공동체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그들 자신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믿으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쁘다. 또한, 미래에 살기를 더 좋아하면서 현재 공동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부류도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린 지도자 이맘’이나 존재하지 않는 ‘개혁가 이맘’, 혹은 ‘구원자 영웅’, ‘현명한 지도자’ 등이 오기를 기약 없이 기다린다. 그들은 애처롭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중립적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천사가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들고 오리라고 믿는다.

무슬림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더 공부할 필요가 있

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크든 작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물이 된다.”는 속담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효과적이고 성의 있게 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보일지라도 수용하고 보상하실 것이다. 게다가 인류 역시 그로부터 틀림없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올바른 혁신

우리는 여전히 유용한 전래의 원칙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믿고, 옛것의 바름과 새것의 적실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로써 우리는 정체와 무력, 고립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신앙적 기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현대세계와 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목표와 현실, 그리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이제까지 무슬림 공동체는 이슬람 사상과 과학에서(기존 가르침의) 모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지적,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역사 속의 유명한 이슬람 학자와 이슬람 학파 설립자의 사상과 유산을 공경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닌 지적인 탐구와 추론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신앙의 이해와 해석에서 끊임없이 체계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b] 초대의 윤리

윤리는 개인이건 집단이건 건전한 무슬림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최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진실로, 우리는 인간을 최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꾸란 95장 4절)

따라서 인류는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닌 탁월성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꾸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성품이 우리의 모범이라고 강조한다.

“보라, 그대는 실로 송고한 생활을 지키고 있노라.”

(꾸란 68장 4절)

선지자 본인도 예의와 성품의 가치를 강조했다. 압둘라 이븐 우마르에 따르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중 가장 훌륭한 이는 가장 예의 바르고 성품이 좋은 자이다.” (알-부카리 56/759)

초대의 실천은 이슬람에 대한 봉사라는 전반적인 목표에 충실해야 하고, 초대 일꾼이 마음속에 지닌 윤리는 하나님과 신앙,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적인 이익에 대한 야심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의 봉사와 누가 봐도 믿음직한 일꾼의 행동 자체에서 초대 활동의 추동력이 나온다. 초대 일꾼이 이슬람의 진정한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가 무슬림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개인이건 그룹이건 평

소 말과 행동에서 드러내는 윤리가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할 것이다. 일꾼의 올바른 신앙이 용기, 참을성, 신뢰성, 강함, 관대함, 중용, 겸손, 과도함과 광신, 과잉반응에 대한 경계 등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서 권장하는 성격과 인품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두와 함께 일꾼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능하신 하나님의 지원과 인도를 믿고 그에 기대야 할 것이다.

1. 초대와 이슬람

초대의 윤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로서 이슬람과 반면 신앙에 초대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인 초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과 초대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신 이슬람 메시지에 한 점의 그릇됨도 없다는 이슬람의 무오류성을 믿는다.

반면 초대 활동은 옳을 때나, 틀릴 때도 있는 인간의

노력이다. 하나님의 종교는 신성하지만, 초대 활동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이슬람의 신성이 곧장 초대 활동의 완벽성을 보장하지도 않고, 초대의 실수를 이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명성과 세속적인 지위

초대의 실천윤리는 초대 활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자들이 수행했던 바로 그 임무이고,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임무 중 하나라는 이슬람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 활동을 하는 이들(일꾼들)을 공경하고 그들에 대해 존경과 사랑을 바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 활동의 의도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가능한 피해야 할 일은 초대의 자리를 통해 명성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준다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가에 걸맞게 고귀한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따르는 곳이며, 권리

가 아니라 짐이 있는 곳이다. 요컨대, 모든 초대 일꾼이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가치와 윤리는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파벌이 아니라 임무

초대 단체가 임무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는 개인들이 모인 배타적인 파벌이 되면 확연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내용보다 외양이, 효율보다 나태가, 희생보다 이기심이, 성실성보다 위선이 우세하게 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 초대 활동이 배타적이 되면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반대자들이 공격할 좋은 빌미를 제공한다. 초대는 본질상 포용적이고 공개적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업이다.

2. 롤모델이 되어라

초대 일꾼은 올바르고 건실하며 이슬람에 충실한 성품의 인간으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초대 일꾼은 자신의 행동과 말, 심지어 외모마저도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가 믿는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대 일꾼은 항상 자신을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최적의 롤모델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삶과 죽음

순교는 깊은 믿음이 있는 이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신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고귀한 일이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죽음’만큼이나 훌륭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진리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죽음’보다 세상에 더욱 유익할 수도 있다. 이슬람 활동가들이 이슬람의 대의에 봉사하기 위해 세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자원을 개발하

고, 유익한 일에 능력을 사용하고, 무슬림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인류에게 훨씬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다. 무슬림은 죽음보다 삶을 선호하고, 일부 광신적인 종교집단처럼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삶의 가치는 가장 좋은 삶을 사는데 있고, 모범적인 롤모델이 되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두 가지 유형의 신앙심

참된 신앙심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바른 정신과 마음을 요구한다. 그런 인품을 가진 이는 사회의 좋은 모범이 되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본받으려 한다. 우리는 참된 신앙심을 권하는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거짓 신앙심에 대해 경고한다. 그것은 불순하고 혼란한 정신과 '병든'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전한 정신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쉽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부정적인 사례를 만든다. 불행하게도 특히 초대 일꾼이 이런 종류의 잘못된 신앙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효과는 보통 사람이 저지르는 죄보다 더욱 크다. 사람들이 그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의 종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신앙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내적 도덕보다 외양에 집착하는 것으로, 의무적인 예배는 무시하고 남들 눈에 잘 띄는 의식에만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약점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자리를 탐내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자리를 얻는 자격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반면 참된 신앙심을 가진 이는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다. 참된 신앙심은 무슬림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꾸란의 다음 구절을 보라.

“말하리니, 나의 예배와 헌신과 삶과 죽음은 모두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꾸란 6장 162절).

두 가지 유형의 용기

용기는 가장 중요한 초대의 도구 중 하나가 되는 탁월

한 성격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더 용기 있는 일꾼에게 더 많은 성공의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용기가 있다.

때로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도 용기이다.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판단하여 사안을 재고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진짜 용기이다. 특히 이런 용기는 지혜와 끈기가 필요하고, 비판과 비난에도 강하다. 이런 유형의 용기와 과감하게 나서는 용기가 적절한 시기에 합쳐질 경우 가장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용감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이들은 사물을 보는 시야가 보다 넓어서 광범하게 다양한 요소를 계산에 넣고 사고하기 때문이다.

참을성은 용기의 다른 표현이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자가 보여주었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꾸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참을성을 지니라고 권하셨다.

“곤경에 처했을 때 참고 기다려라. 굳건한 마음으로 참을성 있게 대처했던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여전히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빠른 몰락을 구하지 말라.”
(꾸란 46장 35절)

튼튼한 신자

초대 일꾼이 내외적으로 가져야 할 특징과 윤리 중 ‘튼튼한 신자’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튼튼한 신자를 양성해야 한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신자나 허약한 신자 둘 다 좋지만, 이왕이면 튼튼한 신자가 낫다.” (사히 무슬림 47장/ 하나님의 명령)

교리의 강함은 정통성으로, 신앙의 강함은 깊이로, 행동의 강함은 올곧음으로, 지식의 강함은 인식으로, 육체의 강함은 신체적 힘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튼튼한 신자가 되려면 바른 식단을 섭취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건강한 일상생활로 자신의 육체를 보살펴야 한다. 또한, 마약이나 담배, 술 등 우리 신체에 해악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최선의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초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위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도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강함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꾸란 역시 선지자 모세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힘과 신뢰성을 중시한 바 있다.

“두사람 중 하나가 말하기를, ‘아버지! 그를 고용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쓰기 좋은 사람이 바로 것처럼 튼튼하고 믿음직한 이니까요.’” (꾸란 28장 26절)

3. 중용, 균형, 관용

중용과 균형 실천하기

이슬람은 중용의 종교이며, 결핍과 과잉이라는 두 가지 유감스러운 극단의 사이에 있는 중도의 길을 대표한다. 하나님은 무슬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너희를 중도를 걷는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너희는 모든 인류 앞에서 진리의 증인이 되고, 사도는 너희 앞에서 증인이 될 터이니...” (꾸란 2장 143절)

이슬람에서 중용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최후의 계시인 이슬람은 포괄적인 것이다. 무슬림은 자신

의 임무를 방기하고, 문명의 건설을 도외시하는 은둔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인생이 제공하는 쾌락에 지나치게 빠져서도 안 되며, 균형 잡힌 바른 생활로 인생을 가꾸어야 한다.

문명의 발전이나 생활의 영위에 중용이 필요하듯이, 봉사나 소비, 거래, 심지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것에도 중용은 필요하다. 개인의 요구와 공동체의 요구 사이에서 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용의 일종이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몸과 정신의 균형, 지식과 감정의 균형, 모든 일에서 과잉이나 포기를 피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초대 일꾼이 지켜야 할 윤리이다.

포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와 이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개탄할만한 극단이며, 과잉 역시 인간 본성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할 극단이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탐닉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과도한 짓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꾸란 7장 31절)

한마디로 적절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수명이 짧고, 자멸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중용을 이슬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성품과 능력, 약점과 강점을 모두 아시기 때문이다.

확신의 표시

이슬람은 결코 죽지 않는 신앙이다. 그리고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적들이 뭐라고 하던 최고의 존재로 군림하신다. 이슬람은 참되고 최종적인 신앙이기에, 이슬람 활동가는 이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지녀야 한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타인에게서 필요한 도움과 동의를 얻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이나 강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슬람의 전파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초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꾸란은 이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믿음에 있어 강제란 있을 수가 없으니. 참된 길은 잘못된 길과 분명히 구분되었다. 그리하여 악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밭줄을 잡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꾸란 2장 256절)

평정을 실천하고 과잉반응을 피함: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지혜를 실천하고, 도발하기보다는 먼저 심사숙고하라.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직면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비이성적으로 대들지 말고) 능동적으로 문명을 건설하는데 참여하라. 개혁에 임할 때는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어떤 이들은 일부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타락한 언행과 뼈뿔어진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다. 개혁가들은 때로 극단주의로 흐르고, 때로는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것까지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초대 일꾼은 이슬람의 실천에 많은 잘못된 관행이 스며들어왔다고 판단하고, 비드아(bidah, 종교 개혁)의 개념을 적용하려고 한다. 일부 개혁가들은 일부 무슬림이 특정 학파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고 말하면서 '이슬람사상 학파'의 폐지를 요구한다.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은 특정 지역에 만연한 사치에 반발하여 완전한 금욕주의를 주장한다. 이 중 어떤 것도 무슬림이 추구해야 할 길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균형 있고 온건한 중용의 관점을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슬림, 특히 초대 일꾼은 극단적인 입장을 피해야 한다.

광신에서 벗어나기

초대 일꾼은 열정과 광신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일꾼이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는 건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 가장 이롭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열정은 합당하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계를 넘어 한 발 헛디디면 그는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무지의 산물인 극단적이고 무비판적인 열정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함과 바른 행동이야말로 합당한 열정과(이슬람에서 금지하는) 광신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힐리야(이슬람 이전의 무지)와 모든 종류의 광신, 즉 영토나 부족, 정당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이나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앙의 과잉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무슬림에게 교훈을 주신다.

“말하라. ‘성서의 사람들아! 너희의 신앙적 믿음에서 (진리의)경계를 넘지 말라. 너희 앞에서 길을 잃었던 이들을 뒤따르지 말라. 그들은 많은 다른 이들을 헤매게 만들었으며, 그들 스스로도 아직까지 바른 길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노라.’” (꾸란 5장 77절)

4. 긍정적 태도

우리는 초대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낙관주의를 전파하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비관주의나 신뢰의 결여,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세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피하라고 권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며 희망은 행동과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시험과 고난에 관한 전승

필자는 여기서 선지자의 시험과 고난에 관한 전승 대부분은 전거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거가 강한 소수의 전승조차도, 이슬람 공동체가 점점 악화되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 혹은 특정 상황에 한정된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허약한 공동체의 상황을 특정 전승의 의미에 기대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진리의 승리를 약속하는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나오는 문서적 증거와 배치된다. 그러한 잘못된 이해는 과거나 현재의 사건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과

도 명백하게 모순된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놓고 그들이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고난을 겪고 패배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선지자가 언급한 시험과 고난은 오직 (승리를 말하는) 전체 중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종교에 분명히 승리를 가져다주실 것을 더욱 확신한다. 초대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지구 전체로 전파하고,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승리와 패배의 유산

이슬람의 역사는 무슬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원천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성과를 되새기며 현재와 미래에 이를 재현하려고 노력한다면 무척 바람직한 일이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의 영광만 찬양하고 현재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해로운 방해물로 작용한다.

우리 역사 속의 실수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한다

면, 우리는 이를 이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실수에 대해 한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현재에도 실패하고 미래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중대한 결점의 극복

많은 무슬림과 초대 일꾼이 세속과 신앙 문제에서 맡은 일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결점을 보여주곤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많은 일꾼들이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자원, 훌륭한 위치, 훌륭한 사람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류를 이끌고 훌륭한 문명을 건설할 능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퇴보가 아닌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실성, 창조성, 자기평가, 자유 경쟁, 숙련도, 조직적 활동, 상벌제, 노동윤리의 강화 등의 요소들을 도입하고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음모이론

일부 초대 일꾼은 음모이론을 퍼뜨리고, 다른 이들은 이를 부인하며, 또 다른 이들은 판단을 보류한다. 음모론은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존재해 왔고, 심판의 날까지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음모로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잘못이다. 심지어 실제로 음모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음모들이 늘 성공하지 못하며, 때로는 음모가들이 역풍을 맞기도 한다.

우리는 ‘음모론’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완전히 신뢰하는 양쪽의 극단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음모론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딱 거기에 적당한 정도만 주목하면 된다. 또한, 우리의 실수와 나태를 음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음모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인과관계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의 수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종교를 수호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발휘하시어 무슬림에게도 이 고귀한 임무를 맡기셨다. 진리를 나타내는 이 종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지만, 그 명령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는 모든 고귀한 선지자들과 사자들, 이 종교를 수호하면서 그들을 따른 교우들이 바친 희생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 중에서 최고의 모범을 찾아 따라야 한다.

초대 활동에 관련된 무슬림은 자신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믿을 때 항상 하나님이 지원하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얻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돕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의 앞길이 순탄할 것이다.” (꾸란 47장 7절)

절제된 열정

열정은 결단과 희생, 경쟁과 혁신의 정신을 불리일으키는 축복이다. 열정이 강할수록 초대 활동도 더욱 번창할 것이고, 약할수록 초대 활동의 성과는 지지부진할 것이다. 하지만 초대 일꾼이 열정을 불리일으킬 때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적정한 양의 약을 처방할 때처럼 조심

스럽게 계산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처방량이 너무 많으면, 그들의 열정이 지나쳐서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기 쉽다.

현명한 이슬람 활동가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조금 덜어내면서 격려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지원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격려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의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도 유용한 일을 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일은 초대 일꾼들 자신이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로 그들을 대할 때 가능해진다.

5. 겸손과 겸양

초대 일꾼이 진심으로 자신의 임무에 몸 바치기로 결심할 때 이슬람의 진정한 소명이 시작된다. 초대의 근본적인 윤리 중 하나는 초대 일꾼이 진심으로 겸손과 겸양

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참된 증복은 길을 갈때에 조심하고 어리석은 자의 시비에 평화의 말로 대답한다.” (꾸란 25장 63절)

진실성과 정확성

의도의 순수성은 신앙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행위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위의 필수조건이다. 진실성(Ikhlas) 역시 본질적인 것이다. 진실성이 결여된 행동은 공허하다. 하지만 진실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이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할지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성에는 반드시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고, 정확한 행위는 진실해야 한다. 즉 두 가지의 필수적인 결합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진실하지만 지나치게 순진하면 쉽게 실수를 저지룰 수 있다. 사실 진실성과 순진함이 결합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의도가 진실하지만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은 적들이 그를 기만하는 기회

를 줄 수 있다. 혹은 진실하지만 너무 순진한 일꾼은 훨씬 나은 소득을 두고 그보다 크지 않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혀 쓸모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이들은(아마도 이것이 어리석음과 무지의 최악의 형태일 텐데) 잘못된 목표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불러와서 스스로가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되며,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우월성이란

진리는 거짓보다 우월하다. 하지만 초대 일꾼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초대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겸손보다 우월의식을 지니는 나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왜곡된’ 우월의식은 어떤 개인이 타인보다 더 낫다고 자신을 속이려는 심리적 기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초대의 대상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는 이러한 분리를 타인의 타락으로부터 자신의 순수를 지키고, 타인의 무지로부터 자신의 지식을 지키며, 타인의 하등함으로부터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당화한다. 이런 상태의

개인은 더 이상 초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유형의 존재는 초대 활동에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런 이에 대해 개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만에 물들어 사람들로부터 등 돌리지 말고, 오만한 모습으로 걷지 말라. 보라, 하나님은 자만에 빠져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행동하는 이를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꾸란 31장 18절)

따라서 이슬람 활동가는 저열한 사상에 대하여 자신의 사상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하지, 타인에 대해 자기 개인의 우월성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해야 마땅하다. 초대 일꾼은 자신의 대상을 사랑으로 대하고, 관용과 인내를 보여줘야 하며, 그들이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할 때 일꾼은 진정한 도덕적 우월성을 얻고, 잘못된 심리적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원칙의 우월성이지 개인이나 파당의 우월성이 아니다.

사치를 피하라

사치를 부리는 건 낭비를 동반하는 부끄러운 성향이 며, 이는 생활에서 또 다른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슬 람은 사치스러움이 나라의 몰락을 알리는 징후라고 간주 하고, 이에 대해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사치를 피해야 한다. 사치는 일부 초대 일꾼들 사이에서도 만연하는 버릇이 되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하고, 5성급 호텔에 묵는다든지, 1등석 비행 기 티켓이나 고급차량을 고집한다.

일부 초대 일꾼들은 자신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 인’일 뿐이기에 그 정보에 포함된 대의를 지킬 필요가 없 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남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다. 초대에 그런 ‘지적인’ 사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초대는 오직 사람 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돕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한 명 예로운 사업이다.

이 거짓 지식인들은 물질적 사치뿐만 아니라 지적 사 치를 부리는 이들이다. 따라서 지각 있는 일꾼들은 사람 들의 시간과 돈, 노력을 낭비하고, 현실에서 멀어진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 거짓 ‘학자’들을 조심해 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대는 아침저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 곁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들에게서 벗어나 속세의 즐거움을 탐내는 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말라. 우리는 항상 자신의 욕망만을 따르고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우리의 일에 무심하게 만들었으니, 그에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말라. (꾸란 18장 28절)

종교지도자를 대할 때

초대 활동의 지도자나 종교학자, 지역의 이맘 등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사랑이 한계를 넘어 과도해서는 곤란하다. 사실 과거 일부 신앙의 추종자들이 그릇된 길은 간 것은, 그들이 선지자나 성인을 과도하게 숭배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아 다신(shirk)을 주창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일꾼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지도자를 너무 따름 나머지 지도자를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지도자를 무오류로 간주하는 일꾼은 다음의 격언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별하지,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진리를 판별하지 않는다.”

과도한 숭배는 초대 활동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지도자에 대한 사랑은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때로는 옳고 때로는 그를 수 있는 인간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도자가 받는 사랑과 존경, 충성은 그들이 이룩한 성과의 정도와 어울려야 한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구할 뿐이고, 지도자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초대 일꾼 중에서도 특히 지도자는 겸손과 겸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무오류와 신성은 신앙에만 속한 것이다.

무슬림으로서 우리는 종교학자, 그중에서도 특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거의 학자들을 존경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재의 특별한 상황과 시간과 장소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무작정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과거의 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상황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고려한 적절한 법적 검토를 통해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대해 독립적인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의의 독점은 없다

우리는 우리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방법이 정당하다고 믿지만, 그것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며, 우리의 방법과 목표에 실수나 흠집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교정한다.

또한, 우리는 목표와 방법이 다른 이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우리는 모두 1)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2) 옳은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3)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4) 다른 이의 올바른 행동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같은 것을 추구하는 다른 이들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는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이런 나눔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지식과 조직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조언이나 지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다른 이의 행동은 그르고, 자신의 행동은 모두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없다. 우리는 항상 겸손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슬림의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서로와 협력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의와 선행을 위해 선의

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 인류여, 우리는 남녀 한 쌍에서 너희 모두를 창조했고, 너희를 민족과 부족으로 나누어놓았다. 너희도 이제 그 사실을 알리라. 진실로 너희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자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이다. 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꾸란 49장 13절)

[c] 초대의 방법

초대의 목표는 일정하지만, 초대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은 조건 및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초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초대의 방법과 수단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초대를 위해 모든 이의 경험에서 배워야 하며, 자신의 방법만 고수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자신의 방법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이슬람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초대의 목표에 봉사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혁신적인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초대의 방법은 다양해야 하고, 일꾼이 활동하는 맥락과 환경에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우리는 이 중요하고 영원한 실천의 원칙들에 유의해야 한다.

꾸란은 초대 활동을 독려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행으로서 사람들을 공동체어로 초대하고, 바름을 권하고 그릇을 금하는 이들이 나오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들은 복 받으리라.” (꾸란 3장 104절)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초대 방법론은 없지만, 대신 초대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은 들어 있다. 초대 일꾼은 이슬람

의 통일성과 사상의 명확성, 그리고 방법론적 원칙의 보편성을 인식하고 수용한 후 초대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슬람의 초대 방법은 무엇보다도 대화와 토론의 에티켓, 수단과 언어의 명확성, (개인이나 가족, 고향, 그리고 인류 전체에 이르기까지) 초대의 대상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초대 일꾼은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각 목표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점진적인 발전을 지향하면서, 주변인들과 협력하고, 모든 일을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공식·민간 차원의 조직에서 진행하는 보다 체계화된 조직 차원의 초대는 서로의 사업을 칭찬하고, 사업에 관해 서로 상의하면서 진행하며,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 가능한 최선의 수단과 가장 적합한 도구와 전문성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 사상의 통일성과 명확성

사상의 통일성

이슬람 활동가들의 의견차이는 보통 그들 사이에 생 각의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하여 목표 와 수단, 우선순위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불화와 심 지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감안할 때, 일반 무슬림 활동가와 특히 젊은이들 간에 지식의 통일을 강화하여 분열을 해소하는 일이 시 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기초 하고, 중용과 협력, 관용, 동지에, 공정성의 정신을 담은 문헌들을 널리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이들이 대화할 때는 우선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 화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이슬람의 포괄성과 시공을 초월한 적용가능성을 강조한다면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목표에 부응하는 문헌들을 세심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그리고 이 문헌들을 활동가들과 젊은이들 앞에 놓고 마치 교육 커리큘럼처럼 사용하는 게 좋다.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은 초대 활동에 관한 일정하고 통일된 사

상의 방법론을 구성한다.

그리하여 초대 일꾼들은 명확하고 건전한 지식과 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초대 활동을 시작한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다양성은 통일된 이슬람 지식과 원칙 아래에서 통합된다. 초대 일꾼들은 다음과 같은 꾸란의 가르침을 따른다.

“말하라.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이성에 합당한 통찰에 기반하여, 나는 너희 모두를, 즉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른다.’ 그리고 말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이들 중 하나가 아니다!’”(꾸란 12장 108절)

공통의 기반

초대 활동의 관련자들 모두가 목표와 수단, 우선성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 사이에 불가피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초대 일꾼들은(특히 신앙과 의식, 윤리와 일처리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해나 고집, 혹은 개인적인 변덕이나 욕심에서 나오는 논란이 이런 공통점을 가리고 만다.

이 차이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반면 공통점은 작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수가 있다. 따라서 초대 일꾼들은 사실을 직시하고, 본인들 사이에서 이해와 합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차이와 불화

이슬람은 단결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구성원들이 단결을 추구하고 분열을 피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슬람은 또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법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초대 일꾼의 목표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차이를 이로운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이로운 차이는 의견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서로 다른 견해는 인류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인류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성별과 피부색, 신체의 크기가 다르듯이, 정신과 이해, 사고방식이 모두 다르도록 창조하셨다.

다양성과 이로운 차이의 존중은 마치 수많은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더 많은 촛불을 켤수록 더 많은 빛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중 어떤 촛불도 다른 촛불의 빛을 꺼트리지는 않는다.

해로운 차이는 불화와 관련이 있다. 수많은 꾸란 구절과 선지자의 전승이 증오를 금하고 있다. 다음 꾸란 구절을 보라.

“모두 함께 하나님의 끈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서로 떨어지지 말라...” (꾸란 3장 103절)

증오는 갈등과 논란을 일으킨다. 증오는 당사자들을 약하게 하고, 결국에는 모두 패배하고 만다.

초대는 증오에서 항상 벗어나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초대는 이슬람의 변할 수 없는 근본을 대표한다. 초대는 이슬람공동체의 정체성, 영혼, 임무, 그리고 교리와 행동, 감정의 일치까지도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슬람법을 공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지켜야 할 예절과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견을(하나님이 명령으로 정하신 한계 내에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는 상황과 시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초대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종교와 관습

때로는 습관이나 전통, 규범 같은 것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심지어 신앙과 같은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요소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여성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 사람들이 이슬람에 관해 오해하는 쟁점에서 이런 요소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전통과 종교를 확실히 구분해야 하고, 특정한 습관이나 관습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느냐 여부는 우리의 신앙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방법론의 통일성과 명확성

올바른 방법론

초대 활동을 수행할 때는 이슬람의 사실과 원칙을 명확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다. 초대 일

꾼이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때, 이슬람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대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후 나중에 부연해서 고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또한, 따르는 무슬림이 적은 흔치 않은 특이한 사상이나, 존재감이 없는 작은 그룹 혹은 이슬람법에 대한 뼈뿔어진 해석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오더라도 이에 관한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다.

대화의 예절

대화의 예절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 대화는 진리를 발견하고 타인을 진리로 인도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견해를 평온하고 진지하게 제시해야 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특히 동의하지 않을 때 흥분하거나 상대의 말을 자르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그대 주님의 길로 초대할 때, 지혜롭고 다정하게 설득하라.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과 토론

하라. 그대 주님은 누가 그분의 길에서 떨어져 헤매는지, 누가 올바른 길을 걷는지 모두 알고 계신다.” (꾸란 16장 125절)

하나님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내린 다음의 지침을 보면 초대의 적합한 방식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선지자) 네가 너를 따르는 이들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주의 은총 덕분이다. 만약 네가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다면 그들은 분명 떠나고 말았을 것이다. 네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주가 그들을 용서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그들과 의논하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의 방향을 정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꾸란 3장 159절)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

우리는 의미가 명확하고 확실하며 독창적인 용어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용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특정 시기에 인기 있는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경향에 따른 유행어에 빠져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슬람을 사회주의가 유행일 때 사회주의로 묘사한다거나, 자본주의가 인기일 때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인기라고 해서 민주주의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정치적 운동과는 달리 이슬람은 보다 크고 포괄적인 원칙과 교리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이 때때로 다른 시스템의 원칙과 겹쳐질 수가 있는데, 이는 이슬람이 포괄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다. 사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슬람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파생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꾸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다른 이데올로기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꾸란은 궁극적인 진리이지만, 인간이 만든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는 각각 상이한 정도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초대 일꾼은 일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명확한 표현으로 군중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다음의 구절을 외우면 좋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오! 주여, 제 가슴을(주의 빛을 향해) 열어 주소서. 제가 일을 더욱 쉽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혀를 묶은 매듭을 풀어 그들이 제 말

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꾸란 20장 26-8절)

3. 초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초대 일꾼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서로의 노력을 포용해야 한다. 우리 모두 초대라는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타인의 노력을 치하하며, 그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이룬 성과가 아무리 적고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성과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여 도움을 얻어야 한다.

초대 활동의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초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인류 모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필자는 여기서 이 점에 대해 보충설명 하고자 한다.

최초의 보편적 인권 선언

우리는 이슬람이 사상 최초의 보편적 인권선언을 포함한다고 믿는다. 이슬람은 모든 인류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신앙의 자유를 독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한다. 또한, 이슬람은 교육과 결혼, 안전, 생계, 정의와 소유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슬람이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 권리가 인간의 가치를 고양시키며, 꾸란의 다음 구절에서 말하듯이,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명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아이들에게 존엄을 부여했고, 그들을 땅과 바다에 흩어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물자를 주어 살게 했고, 우리의 창조물 중 으뜸으로 삼았다.”
(꾸란 17장 70절)

인류는 지구에서(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은 우주를 인간이 이롭게 쓰도록 맡기셨다. 우리는 각 인간이 가진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믿고, 또한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믿는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을 타고 났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존엄한 존재이다. 따라서 초대는 보편적인 것이며, 무슬림으로서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에서 시작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새내기들

새로운 사람이 진심으로 이슬람을 받아 들일 때 무슬림은 기뻐한다. 어쨌거나 그것이 초대 목표 아닌가. 하지만 때로는 무슬림이나 초대 일꾼이 그 기쁨 때문에 선택에 대해 과잉반응을 한다면 선을 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종교를 위해, 또한 선택자 본인을 위해 선택자의 의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가 이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하여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동안 선택자의 의식 깊이 이슬람이 자리 잡고, 그의 의도와 이해, 행동에 서서히 이슬람이 반영될 것이다.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한답시고 야단법석을 떨어서는 곤란하다. 지나치게 과하게 반기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택자를 '꼭두각시'처럼 취급한다고 느끼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선택자의 지적·정신적 능력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오만해져서 자신을 이슬람으로 인도한 무슬림들을 좌

지우지할 수 있다고 오관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선택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도와 도움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신자를 대할 때는 균형 있는 중용의 반응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가족의 가치 수호

이슬람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가족은 어린이에게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자 최고의 환경이다. 가족의 관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초대 일꾼은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고, 가족단위가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강력하고 성공적인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무슬림 여성의 지위

역사를 통해 여러 사회 속에서 여성은 엄청난 불의와

억압으로 고통 받아 왔는데, 이 불의의 원천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향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불의의 원천은 세속적 극단주의이다. 세속적 극단주의는 여성의 신앙과 순수, 고결함과 특수성을 빼앗아 타락시키려 한다. 여성에 대한 두 번째 불의의 원천은 종교적 극단주의이다. 종교적 극단주의는 여성을 열등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여성이 도처에서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막으며, 가정의 울타리에만 가두려 한다.

종교적 극단주의는 설사 의도가 좋을지라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많은 극단주의자들이 여성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을 불신하고 증상한다. 그들은 꾸란 용어 ‘까와마’(Qawamah)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들이 지닌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여성의 인간적 특성과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수 세기 동안 누적되어온 가부장적인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여성을 억압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지지하는 문헌상의 증거가 이슬람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종교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무슬림 일반, 그중에서도 특히 초대 일꾼은 여성을 신뢰하고, 그들을 정당하게 대하며, (초대 활동을 필두로) 그들이 인생에서 타고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록 해야 한다. 초대 활동에 여성이 참여한다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 1) 이슬람의 중요한 원칙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하는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 이슬람이 여성을 종속화 한다는 부당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가 이슬람을 여성을 종속화하기 위한 핑계로 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슬림 중 일부는 무슬림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의가 이슬람 때문이고, 이슬람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일부를 파괴해야 여성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슬람은 여성에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자유를 제공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또한 그들의 권리와 존엄, 독립성을 보장하고, 여성에게 ‘사회의 절반’, ‘남성과 평등한 자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명예로운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초대 일꾼들은 여성과 나아가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 일반에 대한 이슬람의 올바른 관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전파할 임무를 지닌다.

재능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젊은이들 중에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이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할 능력이 있는 이들이다. 초대 일꾼들은 그런 젊은이들이 자기 확신을 지니고 재능을 꽃피우도록 도와야 한다.

바람직한 여가 활동

초대가 모든 이를 포용하고 모든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표를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식의 오락에 대한 이슬람적 관점을 기술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합당한 형식의 오락은 어떤 운동이나 단체에 속한 개인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구성원들은 적당한 오락을 통해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고,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초대 조직은 합당한 형식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학기가 시작되고 끝날 때 열리는 이슬람 축제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구성원들이 그러한 오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우리는 축제와 경연, 스포츠 활동, 건전한 노래경연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합당한 형식의 오락을 장려하는 것은, 이슬람이 합당한 방식을 통해서라면 죄에 이르지 않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조국의 수호

이슬람을 전파하는 이들은 어디에 살던 자신의 조국을 지키고, 평화를 보전하며, 조국의 성과를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미래세대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조국에 대한 소속감과 신앙에 대한 소속감은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초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조국의 수호는 개인과 사회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4. 우선순위의 목표와 논리

초대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직접적인 목표와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초대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논

리에 따르는 방식, 즉 먼저 가장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다음 단계로 서서히 옮겨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목표의 설정

모든 형태의 초대 활동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꾼들은 반드시 명확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 하고자 하는 바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초대 활동이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상상 속의 희망과 현실을 혼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개인이 저지르는 실수가 작은 재난이라면, 단체가 저지르는 실수는 엄청난 재난이다.

이슬람 활동가들에게 붙은 비판적인 딱지 중 하나는,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잘 아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활동가들이 잘못된 목표

나 올바르지만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면, 이는 “신기루를 쫓는 셈이고” 결국 초대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일꾼들은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는 없다. 올바른 일을 할 때 좋은 의도는 전체 그림의 부분에 불과하며, 그림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시점에서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라.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이러한 때 그들은 초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질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실패뿐이다.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것

일반적인 대중과 이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는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무슬림 공동체에서 떠돌아다니는 일관되지 못한 이야기나 특이한 해석, 지나치게 상세한 부분, 그럴듯하지만 의심스러운 가정 따위도 피해야 한

다.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다루도록 남겨 두라. 그런 문제는 필요할 때가 오면 학문적 배경을 갖춘 전문가들이 나서서 확고한 기준에 따라 설명할 것이다. 일반적인 대중 앞에서는 실천적이고, 현실에 도움이 되며, 시의적절한 문제들을 우선 다루는 게 맞다.

우선순위의 논리

이슬람의 모든 주제가 중요성에 있어 똑같지는 않으며, 따라서 이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신앙이나 하나님의 유일성(따우히드) 같은 문제는 ‘길가에 놓인 돌을 치우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초대의 모든 사안들이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사안에 맞는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때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순위를 재조정하기도 해야 한다.

초대 일꾼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의 사안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성의 원칙이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생활을 모두 아우르는 이슬람의 포괄적인 본성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가장 구체적이고 이로운 결과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세심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지들이 있을 경우,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덜 해로운 것을 골라야 하고, 여러 가지 이로운 것들이 있을 때는 그중에서도 가장 이로운 것을 골라야 한다.

영향권(影響圈)과 관심권(關心圈)

영향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타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둘러싼 분야이다. 이를테면 우리 건강의 개선, 생활수단의 조달, 친지를 돕는 일, 동료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는 일, 주변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우리의 기술을 개발하기, 가족의 부양, 노동과 시민생활을 관할하는 규칙 익히기 등이 모두 그 안에 있다.

관심권 안에는 우리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거나,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미국 달러화 가치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 공해와 환경파괴, 세계의 빈곤 문제 등의 지역문제나 국제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영향권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영향권을 넓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물과 사람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종교적 의무 내에 있다. 우리는 관심권 내의 문제에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동시대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에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영향권 밖에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픔과 불만에 빠져 사회생활로부터 물러나고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데 능하지만, 실패하는 이들은 그저 변명하기에 바쁘다.

점진적인 진보

우리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진보, 무계획 대신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계획, 선동이 아니라 지혜, 성급이 아니라 신중, 단속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업이 필요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일은 작더라도 꾸준히 진

행되는 일이다.”(알-부카리 3/31)

또한, 선지자는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서 받은 건 전달 하십시오. 문장 한 구절에 불과하더라도.”(알-부카리 3461)

“시간이 약이다.”라는 속담 역시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진보가 낫다는 뜻을 함축한다.

단계별 작업

우리는 업무를 몇 개의 단계로 분리한 후, 최종목표에 다가가기까지 차례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첫 단계가 완수되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기반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완수되면 세 번째 단계의 기반이 되어 그런 식으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미래에 대한 준비

현재는 과거의 자식이고 미래의 어머니이다. 일꾼들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미래를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대야 한다.

지각 있는 초대 일꾼은 성공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미래에 대비한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하고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사실 이슬람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궁극적인 미래인 심판의 날에 대비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훌륭한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고 있다. 이를테면 선지자 요셉이 충분한 믿을 비축하고, 현명하게 소비함으로써 이집트를 7년 가뭄으로부터 구한 이야기가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 역시 미래 계획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교우들이 아비시니아로 이주하기 전, 선지자와 교우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전, 메디나의 유대인들과 서약과 합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고 준비할 때 선지자는 계획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계획했다. 그는 여러 지배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협상의 자리로 불러냈고, 위대한 이슬람 문명 발전의 길을 열었다. 선지자가 채택한 이런 방법들이 이슬람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은 것이다.

공격에 대한 전략적 대처

우리는 종종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 고난, 문제와 오해에 직면한다. 이슬람에 대한 공격에는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족에 대한 모욕, 무슬림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공격, 성원의 공격, 이슬람 경전에 대한 모욕 등이 있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증오와 무지, 공명심 등 다양한 동기가 존재한다. 이슬람에 대한 공격은 참된 무슬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핵심적인 활동으로부터 떼놓기도 한다. 무슬림 활동가들은 이런 문제들 중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각 문제의 배후에 있는 동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응 전략으로는 완전히 침묵을 유지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거짓 주장에 대응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대응 자체가 시간낭비일 때도 있

고, 또 그 문제가 실제로는 사악한 자들이 다른 문제로 부터 시선을 돌리고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짓 주장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동지향적 자세

이슬람은 행동주의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행동주의야말로 문명 건설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은 건설적인 토론과 대화를 독려하고, 무의미한 잡담과 쓸데없는 가십 나누기를 반대한다. 일부 초대 일꾼들은 모여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험담하거나,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덧없는 희망을 늘어놓는 등)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는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진다. 그러고는 (잡담에 대한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허전한 마음을 채운 것에 불과한 데도)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수호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오해한다. 실제로 그들은 지식을 전파한 게 아니라 감정을 소비한 것뿐이다. 그들은 이슬람에 봉사했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소임과 책무를 방기했을 뿐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쓸데없는 잡담과 의

미 없는 궤변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어떤 유용한 목표도 없이 그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할 뿐인데 말이다.

5. 상호협력

모든 집단적 노력에서 협력은 성공의 열쇠이다. 초대는 무슬림 모두의 단체적인 의무이므로, 초대 일꾼이 임무를 성공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 및 다른 단체와의 협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풀뿌리 초대 조직과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조직 할 것 없이 모두 팀워크와 팀 정신을 고양시키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협력의 정신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발휘되어야지,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피해야 한다. 꾸란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서로가 덕과 믿음이 커지도록 돕되, 서로의 악과 일탈을 도와서는 안 된다.” (꾸란 5장 2절)

초대는 집단적 책임

타인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은 집단적인 책임이고, 이는 (일부 개인의 책임이 더 클 수는 있으나) 결코 이슬람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슬람은 겁쟁이와 용감한 사람, 구두쇠와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 지적장애인이거나 천재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유형의 사람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초대 활동 자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명예, 용기, 인내, 결단력, 공정성, 이타주의 등) 보다 높은 윤리적 가치를 지닌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공적인 초대 활동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는 도량이 큰 인물이 필요하다. 결코, 실수하지 않는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도량이 큰 초대 일꾼이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형식보다는 본질을 보며, 외양보다 내면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인물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들은 어떤 위험이 앞에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잡고 있는 이상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높은 윤리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이 합류할수록 더 많은 초대 활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슬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떤 이슬람 단체나 정당, 초대 운동도 전체 무슬림 집단이 아니라 각각의 무슬림 그룹만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각 단체의 가치는 그들이 채택한 사상과 개념의 유형과 그들이 성취한 결과에 기반한다. 어느 특정한 집단이 자신을 모든 무슬림에게 ‘선택받은’ 대표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보다 많은 초대 활동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협조와 선의 – 알-마나르 저널의 모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애와 선의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또한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유를 이해한다. 이는 샤이크 무함마드 라쉬드 리다가 알-마나르 저널의 모토로 채용한 유명한 규칙과 일맥상통한다.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서로가 협력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한다.”

좋은 선택과 최선의 선택

무슬림들은 초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해야 할 때 각자의 조건, 이해도, 학습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이때 설사 본인의 생각이나 선택이 가장 훌륭하고 옳다고 믿더라도 이를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더 나은 선택지를 두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괜찮은 선택지에 합의하는 게 낫고, 뭐가 가장 좋은지 끝없이 다투는 것보다는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게 낫다.

동지애

무슬림 형제자매들의 단합이라는 원칙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의 원칙이자 초대 활동의 근본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무슬림 형제자매의 단합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 승리를 내려주신다. 반면 무슬림 형제자매가 분열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어, 무슬림은 이 땅에서 패배하게 된다.

초대 일꾼들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형제자매의 단결을 강조하고, 이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반대할 필요

가 있다. 초대 일꾼들 간의 단합이 이루어지면 상호협력과 지지가 성공으로 이어지고, 형제자매가 단결이 되지 않는다면 불화와 분열, 패배가 기다린다.

꾸란에서 하나님은 형제의 단합과 화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믿는 자들이 모두 형제다. 그러니 (설령 다툼이 생기더라도) 너희 형제들은 화해하고, 주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은총을 입으리라.” (꾸란 49장 10절)

팀 정신

우리는 모든 초대 일꾼에게 팀 정신을 불어넣고, 단체적 실천에 더욱 몰두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선구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세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연장자의 지혜와 젊은이의 열정에서 모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팀 정신이 살아있는 단체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아내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초대 일꾼들에게 공정한 행정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팀 정

신으로 초대 방법론의 통일을 이루어서, 초대 일꾼들이 목표와 수단에서도 통일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신은 통일성의 틀 안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붙여넣는다.

개별적 협조와 집단적 협조

협조의 전반적인 개념과 가치는 개별 수준과 집단 수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초대 일꾼 개인은 타인과 협조하고, 각자의 노력을 격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수준에서도 초대 구성원끼리 모든 방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6. 투명성과 책임성

투명성의 가치와 비밀의 위험성

이슬람은 다음과 같은 선언(샤하다)으로 시작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선지자이다.”

이슬람은 공개적인 선언인 샤하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투명성과 개방성에 큰 가치를 둔다.

초대 활동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슬람 활동 비밀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슬람이 포괄적인 종교이고, 대낮의 태양빛과 같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종교이며, 원칙과 개념이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난 개념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뭔가 숨기는 듯하고 비밀이 많은 개념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밀은 의심과 불신을 부른다. 비밀리에 저지른 실수는 그 실수를 저지른 자가 입는 피해도 크다. 실수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실수가 더 커진다. ‘어둠 속의’ 실수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실수와는 달리 점점 커져만 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지한 실수는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비밀이 된 실수는 아무도 보고 바로잡아 주

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초대 일꾼들이 지하에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평가와 문책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이슬람의 근본적 원칙이며, 공동 의무인 초대 활동에서 특히 지켜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정직과 건설적인 자기비판, 투명성, 지속적인 검토, 개혁과 수정을 지향한다. 우리는 사업을 수행한 방식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확대할 것이다. 반면 우리의 방식에서 실수를 발견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잘할 때가 있고, 잘하지 못할 때도 있기 마련이지만, 담당하는 이가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질 때 최종적인 결과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일부 이슬람 활동가는 초대 임무에 실패했음에도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오해한다. 그들은 평가와 책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일꾼과 성과를 내는 일꾼을 똑같이 평가한다면 정의가 설 자리가 없다. 초대 일꾼은 진

실성, 목표지향, 적절한 업무수행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에 맞는 초대 일꾼은 좋은 평가를 받고, 설사 실수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일꾼의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메시지와 전달자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강화한다. 무슬림 국가나 비무슬림 국가 할 것 없이 공을 평가하고 과를 문책하는 투명한 일처리는 신뢰를 구축하고,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초대 일꾼들 사이와 일꾼들과 대중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은 특히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에 더욱 유용하며, 위기와 약점의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7. 조직적 활동

초대는 기념비적인 임무이다. 다시 말해 이는 무슬림이 비무슬림에게 이슬람 메시지를 전파하는 임무이자, 무슬림들 사이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 잡도

록 하는 의무이다. 이런 임무가 개인적인 노력의 영역에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초대 임무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조직화와 제도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대그룹의 공동노력은 이슬람에 준거한 틀과 꾸란과 전승이 주창한 기본적인 원칙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공공 활동과 민간 활동

공공의 초대활동은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반면, 풀뿌리 이슬람 초대 활동은 정부와 상관없는 단체에서 행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초대 활동과 풀뿌리 초대 활동 사이에는 불신과 의심, 증오가 싹트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a) 어느 쪽이든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지를 앎다. 양쪽 모두 다양한 정도의 악덕과 미덕을 지니고 있다.

(b) 언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를 모른다. 지금은 풀뿌리 운동에 속한 이들이 나중에는 정부기관에 속할 수도 있고, 현재의 정부관리가 나중에는 풀뿌리 운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풀뿌리 초대 일꾼들 모두 신뢰와 협력, 용서의 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현명하고 성실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초대 활동은 모두가 맡은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면 양자는 모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풀뿌리 초대 일꾼 모두가 끝없는 실패와 고통을 맞볼 수밖에 없다.

이 일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는 여기서 제시한 관점에서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한다.

다른 이가 떠난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체계화되고 좋은 전략을 갖춘다면 조직적인 활동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학교와 일꾼이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 기대지 않고서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다. 그러한 협력을 통해 시간과 자원을 아끼는 덕분에 우리는 프로젝트를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교를 위해 봉사하는 첫 번째 인물들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해 인류에게 봉사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는 마지막 인물들도 아닐

것이다.

이슬람 연구와 초대 기관

이슬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유효한 신앙이다. 우리는 이슬람으로 모든 새로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슬림 학자와 법률가들이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저명한 이슬람 연구기관들이 뛰어난 작업을 통해 초대 활동이나 현대세계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런 기관들 중에는 피끄(법률) 연구소, 이프타(종교판결) 회의, 각종 싱크탱크, 무슬림학자 연합 등이 있다. 다양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이 기관들이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서로 협조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들 기관에 (의학, 물리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초대 일꾼들은 법 해석(Fiqh), 판결(Fatwa), 신조(Aqidah), 판단(Ijtihad), 법(Shariah) 등 이슬람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들 기관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존중하라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자격 있는 학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어떤 일꾼이 초대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지라도 그가 법적인 판결을 내릴 만큼 자격이 있거나, 의학이나 경제학, IT 같은 기술적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직적인 초대 활동에서는 노동과 전문성의 분업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는 초대 활동이 보다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이슬람 조직들 간의 관계

이슬람 구성원들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겹치는 영역에서 서로 협조한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된다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해야 하며,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위에서 예로 든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서로 대결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슈라)

모든 무슬림은 비판적인 사고와 혁신을 위해서, 또 서로 동의하는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모두 존중하기 위해서 논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슬람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모든 이가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 되려면, 합당한 권위자들이 수집된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어야 한다. 상의는 집단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슬람은 논의는 높이 평가하고, 무슬림들에게 이를 권하고 있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부름에 답하고, 꾸준히 예배하는 자.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자...”
(꾸란 42장 38절)

하나님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교우들과 일치하라고 명령하시고, 관용과 온화한 말투, 단체적인 노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동료들에게 다정히 대한 것은 주님의 은총이리니. 만약 그대가 가혹하게 대했더라면 그들은 분명 떠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대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주가 그들을 용서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그들과 의논하라. 그리고 그대가 할 일의 방향을 정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꾸란 3장 159절)

논의(슈라)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실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진행되는 논의는 구성원들이 사안을 보다 잘 이해하고, 팀 정신을 강화하며, 사상과 방법론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논의를 통해 나온 결정과 계획은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가능성이 높다.

숨은 지도자가 있을 때

초대 활동에는 결코 이중의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해 표면에 드러난 (실제로는 명목에 지나지 않는) 지도자 외에 숨겨진 (허수아비 지도자를 조종하면서 진짜 결정을 내리는) 실제 지도자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이중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숨은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드러낸 지도자에게 배후에서 명령하거나, 공개 지도자가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조종은 초대 활동의 원칙 중 특히 논의의 원칙과 모순되며, 불법적인 결정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질적으로 이는 일종의 독재이다.

종교에서 독재는 세속의 독재보다 훨씬 나쁘다. 왜냐하면, 전자는 독재자가 하는 일에 신앙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비밀 지도자가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지배할 수 있다. 결국, 공식적인 지도자는 배후의 지도자에게 양심을 품게 된다. 지지자들은 공식적인 지도자가 유약하다고 생각해서 의심과 적대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다. 그 결과 조직은 패배와 실망을 맛보고, 초대 일꾼들이 큰 대가를 치른다.

지도자의 평화적 교체

특히 조직에 속한 초대 일꾼들은 지도자를 교체하는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지도자의 교체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하게 시행된 지도자의 교체는 증오와 분열을 막고, 태만과 무사안일을 끝내며, 혁신과 창조를 위한 계기를 만들고, 세대 간의 발전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수많은 잠재적 지도자들을 기르고, 조직적 활동에 대한 존경심을 낳는다.

재정적 자생

가능한 한 재정적으로 자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부는 안정적인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수용 가능한 자원과 상황에 기반한 자선재단(Waqf)을 만드는 것이다. 자생력을 갖추면 기부자나 자금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초대의 진실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ETHICS OF ENGAGEMENT

초대의 윤리학

결론

용어해설

결 론

지구상에서 이슬람 활동가인 그대는 인류를 구할 수 있을 만큼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대는 일어나 고귀한 이상을 높이 펼치고, 봉사를 통해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대의 임무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대의 종교는 자비와 정의, 평화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 그리고 그대가 지향하는 생활방식은 모든 족쇄를 끊어내고, 인간사의 모든 고난을 경감시킨다. 이슬람은 그대에게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품위와 친절, 존중으로 대하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그대는 맡은 임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대는 사람들의 행동을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향

해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이다. 그대는 개혁자이지 반란군이 아니고, 건설자이지 파괴자가 아니며, 자비의 전령이지, 증오의 전파자가 아니다. 그대는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서 대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마치 아버지가 아이들을 대하듯이, 마치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듯이 하라.

우리가 꾸란과 선지자의 전승에 기반하여 정리한 이 지침을 따른다면, 그대 주변의 무슬림 공동체와 인류 전체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는 그분의 피조물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대에게 자신들을 선(善)과 빛, 평화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이가 바로 그들의 지도자이다.

대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생각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검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이 작은 책자를 초대 활동에 종사하는 헌신적이고 현명한 이들 앞에 내놓는 이유도, 우리가 그들의 의견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초대 일꾼, 무슬림 조직과 무슬림 사회가 이 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원칙을 필요하다면 수정하여 적용하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은 개인과 단체의 초대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가 믿기에 모든 무슬림이 지향해야 할 일반적인 지침이자 가치이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적절한 맥락과 환경에서 적용한

다면 매우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대 일꾼들이 초대의 본질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신앙과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이 지침을 사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단결과 힘은 결국 하나님의 유일성에서 유래하며, 우리는 신조(Aqidah)를 통해 진실한 믿음을 주창하고 표명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에게 더욱 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아흐캄(단수 : 후킴) : 종교적 판결 들.

아끼다 : 신조, 믿음의 실제, 교리.

다이야(복수 : 두아트) : 해석상 '부르는 사람'. 누군가를 부르거나 초대하는 사람. 이는 다른 사람을 이슬람의 길로 초대하면서 다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아트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일을 초대 업무를 수행하는데 바치는 개인들이나 집단이다.

다와 : 초대 혹은 부름. 이는 무슬림이 지닌 의무 중 하나로서, 타인을 자연스럽고도 바르게 이슬람의 길로 들어서도록, 혹은 기꺼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초대하거나 부르는 것을 말한다. 다와는 무슬림과 비 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파끼(복수 : 푸까하) : 해석상 이슬람과 이슬람 법률 및 법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지닌 사람. 법률가.

피끄 알-와끼 : 당대의 현실에 대한 법리.

피트라 : 자연, 자연적 기질 혹은 본성. 인간이 창조될 때 타고난 정체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을 타고났으므로, 무슬림은 이슬람을 피트라 신앙이라고 본다.

하디스(복수 : 아하디스) : 구전으로 전한 선지자 전승으로 순나(Sunnah 규범)를 구성한다. 하디스 내용은 이스나드(Isnad, 전거의 연결성)와 마튼(Matn 하디스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다.

이흐산 : 완벽성이나 탁월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 종교적 맥락에서 이흐산은 경배에서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선지자의 하디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무슬림에게 이흐산은, 마치 눈앞에서 보면서 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항상 자신을 굽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다.”

이즈티하드 : 해석상 노력과 자기 헌신, 독립적인 추론, 개인의 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력 등을 의미한다. 이즈티하드는 이슬람에서 인정한 법리적 원천을 해석하고 그로부터 법적 판결을 끌어내거나,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른 변수들을 감안하여 꾸란이나 순나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특정 문제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클라스 : 성실성과 헌신, 고결하고 성하고 행위.

이스티클라프(혹은 킬라파) : 관리직, 부왕의 지위, 후계자의 역할. 사람은 지구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관리자로서 언급된다.

자힐리야 : 해석상 무지. 아라비아반도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의 시대를 가리킨다.

칼리파 (복수 : 쿨라파) : 관리자, 부왕, 후계자. 무슬림 국가의 수장. 선지자 이후 무슬림 국가의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말. 칼리파라는 용어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이자 무슬림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아부 바크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후 이 용어는 무슬림 국가의 수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용되었다. 영어로는 칼리프(caliph).

마드하브(복수 : 마다히브) : 해석상 나아가는 방법. 이슬람의 사상*법률 학파.

마카시드 알-샤리아 : 이슬람법의 고귀한 목적에 관한 법리.

마르지이야 : 전거의 틀, 권위있는 전거.

마슬라하(복수 : 마살리) : 공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 샤리아와 그에 포함된 명령들의 주요한 목표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과 유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미사끄 : 해석상 계약 혹은 조약. 아랍어 '와시까'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어떤 사람이나 문서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흐와 : 해석상 깨어남. 현대 이슬람의 맥락에서는 이슬람 부흥 혹은 20세기에 시작되어 무슬림 세계를 휘감은 다양한 사건

과 상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앙적 정체성과 종교적 변화를 초래한 이슬람 부흥운동을 말한다.

샤리아 : 해석상 길. 이슬람법의 실체.

슈라 : 서로 의논함.

시라(복수 : 시야르) : 전기. 선지자의 생애에 관해 쓴 책.

순나 : 해석상 선명한 길이나 닦여진 길. 선지자 무함마드가 말한 것, 행한 것, 찬성한 것, 비판한 것 등 그의 본보기를 말한다. 이는 샤리아의 근거 중 하나이고, 꾸란 다음 가는 법률적 근거이다. 순나는 꾸란에서 유래한 판결을 확증하고, 꾸란에 대한 설명이나 주해로 기능하며, 꾸란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타즈디드 : 새롭게 함. 이슬람의 근본에 기반하여 신앙을 쇄신하는 것.

타클리프 : 해석상 의뢰. 신탁이나 채권 등을 위임하는 것.

타끌리드 : 해석상 모방. 특정 학자나 학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것.

타아실 : 해석상 땅에 뿌리를 박는 것. 당대의 문제에 대해 '이슬람적인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이슬람적인 접근법과 방법론. 레인(E. W. Lane)의 아랍어-영어 용어사전에는 타아실에 해당 하는 영어단어 대신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있는 굳건하고 고정된 뿌리 혹은 기초, 이슬람의 기초."

따우히드 : 해석상 통일하는 것. 따우히드 라는 이슬람의 개념

은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일신론 등을 의미한다. 이는 이슬람의 원칙적인 교리이자 기본적인 신조이다.

움마(복수 : 우맘) : 공동체, 민족. 구체적으로는 믿는 자의 공동체 혹은 보편적인 무슬림 공동체.

움란(동사형 : 유아미르) : 문명의 건설. 인간사회의 발전.

우술 알-피끄 : 이슬람법, 법철학의 원칙과 근본. 이슬람의 원천 등에서 법률을 추출하고 이의 법률적*헌법적 타당성을 확립하는 방법론.

아슬(복수형 : 우술) : 뿌리, 기원, 원천, 원칙.

우리는 모든 무슬림,

그중에서도 특히 초대 활동과 관계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 서약에 포함된 원칙들을 채택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치와 도덕, 윤리를 체현하며,

자신이 지닌 최고의 능력에 이를 적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초대 일꾼들이

모든 이에게 협력과 관용, 존중과 이해를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

순수한 의도와 진지한 바람으로 초대 활동에

봉사하겠다고 명예롭게 맹세하기를 요청한다.

값 10,000원



9 788941 803362

ISBN 978-89-418-0336-2